

GS건설, 국내외 건축상 잇따라 수상 “조경 설계 기술력 입증”



서초 그랑자이 중앙 마당



안산 그랑시티 2차 밍스 라온지

GS건설 자이(Xi)가 올해 열린 국내외 각종 건축 관련 상을 잇달아 받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GS건설이 선보인 조경 시설은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또 안산 그랑시티자이 2차가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IFLA Award 2021’ 주거 부분에서 우수상(Honourable Mention)을 받았다. 아울러 ‘제21회 자연환경 대상’에서는 한강메트로자이가 우수상을 받았다.

굿디자인어워드에서는 서초그랑자이의 중앙 광장 스카이 데크부터 오즈의 마법사(놀이터),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유러피언 가든, 그랑시티자이 2차 루프톱 가든, 가경자이 엘리시안 파크, 고덕자이 이야기 숲까지 총 6건이 조경 분야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안산 그랑시티자이 2차에 주거 부문 우수상을 준 IFLA는 지난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 70여 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경가 단체다. IFLA는 매년 회원국 내에 시공된 건축물 중 환경을 실질적 측면에서 강화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환경 프

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이 상은 조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GS건설은 IFLA 주관 어워드에서 지난 2007년 양주 자이가, 2011년과 2012년 일산 자이가 각각 대상(President’s Award)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GS건설이 지은 한강메트로자이는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2021년 제21회 자연환경 대상’에 서도 도시 및 인공 지반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세계적인 조경 어워드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자이(Xi) 아파트의 조경 설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자이(Xi) 입주민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 설계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 그랑시티 2차 스칸디파크밸리



한강 메트로자이 메가자이 가든